신약성경 이야기 II **사도행전**

네버엔딩 사도행전



가르침:선포와 증언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 말 vs 행동

가르침 : 선포와 증언

작성자 : 황원주 스텔라

학습목표

-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안다.
- 사도들의 증언과 선포 방법을 알고 나의 삶에서 실천한다.
-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말과 행동이 일치되도록 노력한다.

관련성경

- "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사도 3,6)
-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마르 9, 50)

지도내용

-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 세례명 빙고게임
- 말 vs 행동
  - 성경말씀 책갈피 만들기

도움말

- 세례 예식과 첫영성체 예식에서 했던 나의 고백을 기억해보며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고백한 것과 지켜야 하는 것들 생각한다.
- 우리가 하는 기도들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 성경 속 사도들이 복음을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 찾아보도록 한다.

참고자료

- 굿뉴스 <가톨릭성인>,<신약성경>
- <축복합니다>율동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 YouTube
- <우리사랑안에 하느님 사랑이>노래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활동목표	▪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다른 이에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 사도들의 증언과 선포 방법을 알고 나의 삶에서 실천한다.
성경말씀	"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　(사도 3,6)
준비물	사도 그림 컷 2~3장, 빙고판, 예시 세례명 카드
진행방법	▪ 그림을 살펴보고 생각을 나누어 본다. **질문1. 그림 속 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질문2. 그림 속 예수님의 모습이 표현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3.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 세례성사 영상을 보고 나의 세례식을 기억해 본다. **질문4. 세례식 때 사제가 세례자의 이마에 물을 부으면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질문5. 왜 그렇게 이야기 할까요?** ▪ 다음의 성경 구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본다. 나와 사도가 같은 사람임을 생각하며 나는 무엇을 전하고 선포해야 하는지 생각해본다. ▪ 내가 세례와 첫영성체를 통해 받은 사명을 생각하며 나의 세례명의 의미를 찾아본다. ▪ 친구들과 내가 주님의 소중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세례명 빙고 활동을 해본다.
도움말	▪ 세례로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 첫영성체를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모시게 된 우리 자신을 기억하며 내가 하느님의 귀한 자녀이며 곧 사도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사도들의 선포 그림과 뒷면의 말을 보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의 의미를 생각하고 나는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선포해야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도록 지도한다. <축복합니다> 율동 <세례성사> 영상 굿뉴스 <가톨릭성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들



*각 그림에 대한 이해의 부분에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엠마누엘이라고 불리우셨으며, 이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이라는 뜻과
그림 안의 사도들의 곁에 함께하시는 것처럼
우리들과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지도합니다.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예식 중>

신앙고백

†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 예, 믿습니다.

세례

†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00)에게 세례를 줍니다.

<성호경>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 구절 중>

1.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 2, 38)

2.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 3, 6)

세례명 예시카드

스텔라 (Stella)	▪ 뜻 : 별 ▪ 성모님을 상징하는 세례명이다 ▪ 망망대해에서 길잡이가 되고 우리 삶에 희망을 주는 바다의 별과 같은 성모님을 뜻한다. ▪ 축일 : 8월 15일
첼리나 (Celina)	▪ 뜻 : 하늘 ▪ 성모님을 상징하는 세례명이다 ▪ 하늘에서 유래하며 하늘의 모후이신 성모님을 상징하는 세례명이다. ▪ 축일 : 8월 22일
다니엘/다니엘라 (Daniel/Daniela)	▪ 뜻 : 하느님께서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 믿음을 표현하는 세례명이다 ▪ 구약인물, 예언자 성 다니엘 ▪ 축일 : 7월 21일
가브리엘/가브리엘라 (Gabriel/Gabriela)	▪ 뜻 : 하느님은 나의 강하신 분 ▪ 교회전례에서 공경하는 세천 사 중 하나이다 ▪ 마리아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예고한 천사이며 하느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고 인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축일 : 9월 29일
요한 (John)	▪ 세례자 요한 ▪ 하느님의 말씀을 받고 요르단 부근의 모든 지방을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함 ▪ 사제 즈카르야와 성녀 엘리사벳의 아들 ▪ 축일 : 6월 24일

굿뉴스 <가톨릭성인>

학생용 활동지 지도 참고자료

<마르코 7,31~37>

예수님께서 다시 티로 지역을 떠나 시돈을 거쳐,
데카폴리스 지역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갈릴래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 주십사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군중에게서 따로 데리고 나가셔서,
당신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우러러 한숨을 내쉬신 다음, 그에게 "에파타!" 곧 "열려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곧바로 그의 귀가 열리고 묶인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분부하셨다.
그러나 그렇게 분부하실수록 그들은 더욱더 널리 알렸다.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하였다.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훌륭하다. 귀먹은 이들은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이들은 말하게 하시는구나."

<마태오 28,18~20>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르코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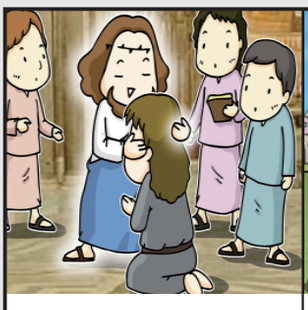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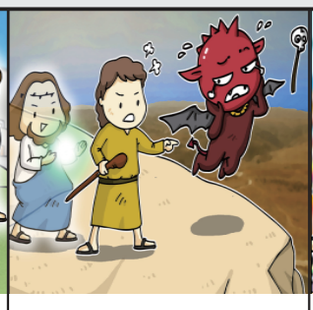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 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마르코 16,17>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그 여자들은 자기들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베드로와 그 동료들에게 간추려서 이야기해 주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들을 통하여 동쪽에서 서쪽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구원을 선포하는 거룩한 불멸의 말씀이 두루 퍼져 나가게 하셨다.
아멘.

[활동] #1.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음의 그림을 살펴보고 답해보세요

그림 1	그림 2	그림3	그림4
			
<마르코 7,31~37>	<마태오 28,18~20>	<마르코 16,17~18>	<마르코 16,20>

1. 그림은 어떤 상황인지 연결해 보세요.

① 그림 1 ·	• 제자들을 파견하시는 상황
② 그림 2 ·	• 아픈 이들을 치유해주시는 상황
③ 그림 3 ·	• 마귀(나쁜 것)들을 쫓아내는 상황
④ 그림 4 ·	• 예수님께서 명령한 것들을 가르치는 상황

2. 그림에서 동그라미 안처럼 예수님이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_____

3. 사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들은 무엇이었을까요?

4. 나의 세례식을 기억하며 ☐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세례성사> 영상

<출처 : Youtube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주일학교>

나는 ☐ 와
☐ 와
☐ 의 이름으로
000에게 세례를 줍니다.

5. 다음 성경구절을 읽어보고 ○ 안에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세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저마다 ○○ ○○○○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사도 2, 38)

베드로가 말하였다.
"나는 은도 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자렛 사람 ○○ ○○○○의 이름으로 말합니다.
일어나 걸으시오."
(사도 3, 6)

6. 하느님의 자녀인 나의 세례명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QR코드<굿뉴스 가톨릭성인>를 활용하여 자료를 찾아보세요.

나의 세례명		축일	
세례명의 뜻		특별한 점	

7. 친구들과 함께 세례명빙고를 활동해요.

세례명 빙고판

#2. 말 vs 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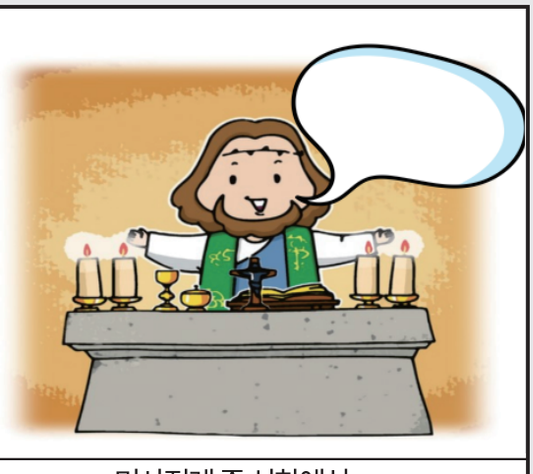
활동목표	▪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내가 선포하고 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 ▪ 나의 삶에서 말과 실천이 함께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성경말씀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맛을 내겠느냐? 너희는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 (마르 9, 50)
준비물	그림자료, 책갈피 도안(십자가, 일자), 핸드코팅지, 네임펜 또는 색연필, 스티커 등 꾸밀 도구, 가위, 끈(가죽, 지끈 등), 펀치(구멍 뚫는 도구) , 성경 말씀 문구 예시
진행방법	▪ 사진을 살펴보며 오늘날 교회공동체와 사도들의 교회공동체를 비교한다. **질문1. 다음 그림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질문2. 오늘날 전례의 모습입니다. 사제가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질문3.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것(말씀, 사랑, 자비 등)을 내가 생활에서 실천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나누어 본다. **질문4. 내가 말씀을 나누거나 사랑을 실천해본 경험을 이야기해요.** **질문5. 혹시 실천이 잘 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또는 혹시 실천을 잘할 수 있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6. 실천해보지 못한 것 중에 또는 실천한 것들 중에 더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말씀을 더 잘 나누고 실천하며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본다. ▪ 나에게 힘을 주는 말씀을 굿뉴스 성경에서 찾아보고 십자가 책갈피 또는 스티커 책갈피를 만들어 본다.
도움말	▪ 하느님 말씀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처럼 매일의 일상에서 실천해야 하는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 실천사항은 실천하기 쉬운 것들로 찾도록 예시를 들어준다. 힘들어하는 친구 위로하기, 부모님 도와드리기, 다른 이를 위해 기도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며 실천이 어렵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실천하도록 지도한다. <우리 사랑 안에 하느님 사랑> 노래  굿뉴스 <가톨릭성인> 

[활동] #2. 말 vs 행동

1. 다음 그림은 어떠한 상황일까요.
   그림 속 상황에 알맞게 말풍선을 완성해 보세요.



<마태오 28, 16~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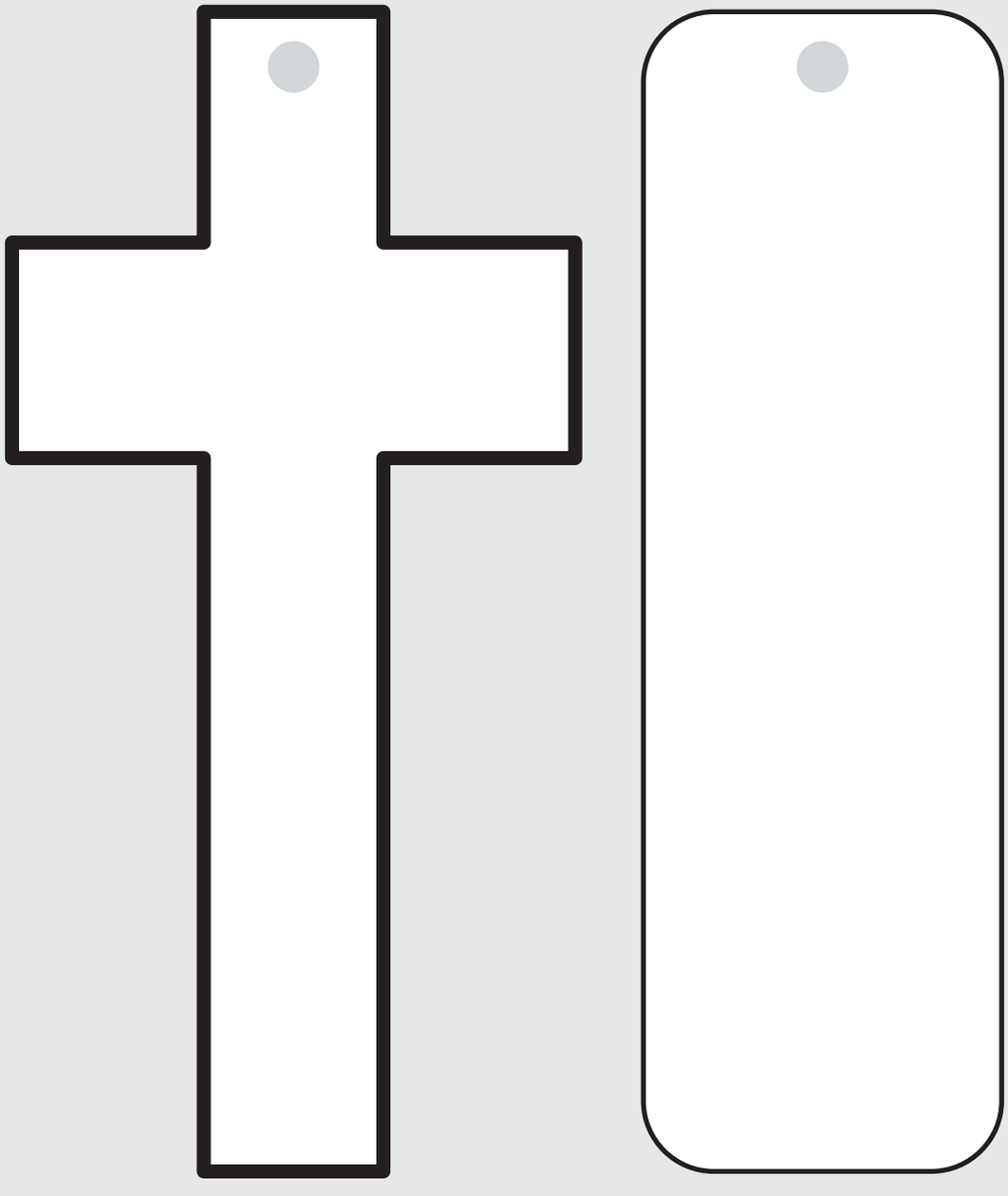
<미사전례 중 성찬예식>

2.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3. 성경 또는 QR코드〈굿뉴스 신약성경〉, 선생님께서 주시는 성경말씀 예시를 활용하여 나에게 힘이 되는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굿뉴스 <신약성경>

4. 내가 찾은 성경말씀으로 책갈피를 만들어 보아요.
   책갈피 도안은 아래 중 1개를 선택하여 활용합니다.



성경말씀

-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마르코 13,31)
-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 1.38)
- "사람의 아들은 잃은 이들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루카 19.10)
-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2)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요한 14.27)
-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요한 20.21)
-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루카 17.5)
-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 28.20)
-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루카 11.9)
-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요한 15,5)
-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1코린 1, 25)
- "우리는 하느님의 협력자고, 여러분은 하느님의 밭이며 하느님의 건물입니다." (1코린 3, 9)
- "사랑은 참고 기다립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1코린 13, 4)
-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 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에페 4, 2-3)
- "나의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스럽게 베푸시는 당신의 그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필리 4, 19)
- "말에서나 행실에서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순결에서나, 믿는 이들의 본보기가 되십시오." (1티모 4, 12)
-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2티모 1, 7)
-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 주셨습니다." (티토 3, 6)
-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해져 진실한 형제애를 실천하게 되었으니,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1베드 1, 22)
- "여러분은 모두 생각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고 형제처럼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며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1베드 3, 8)
-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에페소 2,10)
-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마태오 5,13)
-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십시오." (필리피 4,4)